

조지 리포드 이야기

1969년에 영국 레스터에 살고 있던 젊은 남성 조지 리포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들과 마주쳤다. 조지는 처음에는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으나 결국에는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진지하게 탐구한 끝에, 어느 날 아침 조지는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조지는 새롭게 얻은 간증을 장로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간증을 전하기 전에 선교사들은 그에게 그가 아프리카계 흑인 조상을 둔 혼혈 혈통이기 때문에 교회 회원으로서 신권을 받기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알렸다.

어느 날 조지는 친한 친구에게 선교사와 함께했던 경험을 들려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니 마냥 신이 났고 무언가가 저를 뒤덮어 제가 빛으로 가득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조지의 간증을 재확인해 주었으나, 신권 제한에 관한 그의 염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느니라. 네가 들은 것을 받아들여 너의 신앙을 보이고 나머지는 내 손에 맡겨 보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로 평안을 얻은 조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나이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나이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두 달 후에 조지는 침례를 받고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었다.

신권에 대한 계시가 있기 3년 전이었던 1975년, 조지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자신은 “기탄없이 신앙으로” 신권 금지를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주님의 신권과 그에 따르는 축복, 권세, 그리고 책임이 다시 지상에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1978년, 조지는 모든 합당한 남성에게 신권을 확장한다는 계시를 알게 되었다.(공식선언—2 참조)

“집에 돌아온 조지는 그 소식이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두고 밤새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실로 엄청난 변화였다. 다음 날, 조지 리포드는 아론 신권 제사에 성임되었다. 두 달 뒤에 그는 칠십인에 성임되어 스테이크 칠십인 정원회의 선임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 리포드 부부는 네 자녀와 함께 영국 런던 성전에서 인봉되었다.”(“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